

매혹과 흠모

한없이 겸허하신분

얼마전에 진행된 제6차 전국 로병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의 로병들을 《존경하는 로병 동지들》이라고 자부스럽게 따듯이 불러주시고 깊이 머리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사를 받으며 대회에 참가한 전병로병들도 고마움과 격정에 저마다 눈시울 적시었다. 전병로병들을 위해 이처럼 성대한 국가적행사를 조직해주시고 몸소 참석하시어 따듯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누구인들 가슴벅차이지 않을수 있리라.

인민들에게 한없이 겸허하신 원수님의 모습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새해를 맞으며 하신 그이의 말씀은 지금도 사람들의 귀전에 생생히 울려오고있다.

또 한해들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 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낼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 ... 참된 겸손성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언제나 인민을 하늘로 떠받치고 내세우시면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자그마한 특전과 특혜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는 분이시기에 그이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숭엄한 화복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어느 한 과학자유양소에서 있는 일이다.

몇해전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자들이 꾸려놓은 포도원휴식터에도 들리시었다.

세번째 휴식터에 이르시어 의자들을 빙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보기에 다른 의자들보다 풀잎이 더 있어보이는 한 의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었다. 초물방석들을 깔아놓은 다른 화강석의자들과는 달리 그 의자에는 보기에 우아하게 만든 색다른 방석까지 놓여있었다.

한 일군이 그이께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시면 땀이신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려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건설자들이 수백kg이나 되는 화강석을 채취하여 정성껏 다듬어 특별히 만들어놓은 의자라고 자랑삼아 설명해드렸다. 그리고는 오리털을 넣고 비단천으로 한뼘두뼘 바느질을 해가며 성의를 다한 소행도 이야기하며 이렇게 간절한 청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여기서 좀 쉬고 가십시오.》 순간 그이께서는 대변에 안색을 호리시며 이긴 옥좌인가 아니면 권좌인가고 물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이긴 누를 위협받았다고 하시며 자책감에 싸여있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이런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르시었다.

또 언제인가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을 찾으신 그이께서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 어떤 특전과 특혜도 바라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앞으로 이 극장을 공영을 보려 올 때에는 인민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공영을 관람하겠다고 하시며 중앙관람석을 없앨때 대해 당부하시었다. 그리하여 그후 개관공연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민들로 초만원에 이른 극장의 1500석중의 한 좌석에 불과한 4월 28번 자리에 스스로 앉으시어 자리를 잡고 공영을 관람하시

는 감동깊은 화복이 펼쳐지게 되었다. 너무나 겸허하시고 소박하신 그이를 우리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과 나란히 자리를 함께 한 상상수도사업소의 로동자도, 그의 바로 뒤좌석에 앉은 평양화력 발전연합기업소의 열판로동도 아 니 거기에 참가했던 모두가 뜨거운 마음을 삼키었다.

어찌 이뿐이랴.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예술 소조공연을 보아주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의자를 따로 놓아드리며 앉으시기를 말씀드리는 일군들의 청을 굳이 사양하시고 일군들과 함께 비좁은 건의자에 앉으시어 마지막까지 공연을 보아주시었고 웃은내 배려된 날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어서는 우산을 정리 받쳐드리시는 일군들에게 모두 비를 맞는데 나 혼자 우산을 쓰면 되겠는가고 나무랄 하시면서 굳이 사양하시었다.

이런분이시기에 작은 옥좌와 수수한 벼수를 타고 인민들과 병사들을 찾으시고 너무나 평범한 운동화를 신으시고 수천리 먼 길을 달려 인민들을 만나주시다. 이것은 인민을 위해서는 세상에 들도 없던 가장 훌륭한것을 마련 해주시면서도 자신을 위한 일은 아무리 사소한것일지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겸허하신 위인적품모를 보여주는 수많은 감동깊은 사실들중의 일부이다.

이렇듯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는분이시기에 공화국의 남녀로소 누구나 그이께로 달려가고 그 품에 스스로 걸이 안기고있는것이다. 그이를 만나면은 자리에서 갓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실것을 청드린 녀성비행사도 있고 친부모에 게 매달리듯 그의 손목을 꼭 잡고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겸허하신 성품은 인민을 더욱더 그이께 끌리우게 하고있다. 박영일

송고한 근면의리가 펼친 화복

여름철을 맞아 특유우거진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사랑의 새 전설이 수놓아져 온 나라 인민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축복속에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했던 전병로병들이 이 훌륭한 온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것이다.

뜨거운 온천욕탕에 몸을 잠그고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짓는 전병로병들, 귀빈들을 위해 발전성업 마련된 푸짐한 음식상이며 친부모의 살뜰한 손길이 어려웠듯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는 정결한 숙소들, 산천경개 수려하고 인민의 기쁨이 어 려있어 더욱더 명망인 문화휴양지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 고지우에서 부르던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로병들...

그들인들 어찌 이런 풍성한 대접을 상상인들 해보았으랴. 조국해방전쟁의 불비속을 헤쳐온 로병들이 풍치수려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즐겁고

유쾌한 휴양의 나날을 보내는 이 감동깊은 화복은 전쟁로병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과 도덕의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체험한 중견자들로 위대한 수령들의 존함과 함께 불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라고 불러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다스리해 부여주시는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뜨거운 것인고.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시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기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관심과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것이다.

이번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로병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로병들에 대한 값높은 평가와 존경이 담긴 감동깊은 축하연설도 해주시었다. 그러시고도 주신 사랑부족하신텐 대회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도 모두를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보내어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숭고한 사랑속에 어제는 이곳 양덕에 인민을 위한 최상급의 온천문화휴양지가 꾸러지고 오늘은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모두 이곳에 와 양덕의 산천에는 기쁨의 웃음, 행복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던치게 되었다.

가렬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어언 70년. 그날의 애절한 병사들의 얼굴에는 아득히 흘러간 전파의 나날들을 되새겨주는듯 깊은 주름들이 촘촘하게 나있고 머리에겐 흰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커만 가는 나라의

덕,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숭고한 도덕의리에 떠받들려 진승세대들은 로소를 모르고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젊음을 노래하고있다.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넘칠 우리 생활 우리 땅을 받들어서 한생도록 젊으리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수나

청년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울려 퍼진 전쟁로병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는 인생의 영광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끝없는 정과 사랑을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드리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조국을 받드는 한길에서 진승세대의 본분을 다해갈 심장의 맹세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하늘을 지붕삼고 떠도는 신세 동서남북 바람결에 갈 곳이 없어 찬이슬 잔디위에 쓰러져 울면 어머니의 옛사랑이 다시 그림자

비오고 바람부는 하늘 밑에서 팔베개로 꿈을 꾸는 집없는 짐 없는 천사

우의 가사는 유명한 시인인 조령출이 해방전에 지은 노래로서 나라잃은 망국민의 슬픔을 담은 가요이다.

1913년 자그마한 약방을 차려놓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가던 한미한 의사가정에서 출생한 조령출은 어릴적부터 시글기를 몸소 즐기었다.

4살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 조령출은 1921년부터 1년 동안 한문서적과 다름없는 보물약고를 다니다가 중퇴하지 않기로 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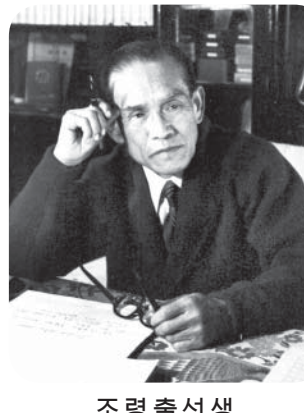
가요 《울며 헤진 부산항》도 이러한 심정을 담은 노래들중의 하나였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인민들이 사랑하는 민요, 가극과 더불어

는 천사 운다 옛사랑이 다시 울 소나 설움했던 가슴에도 희망은 있다

조령출선생



조령출선생

경고받지 않은 그 체험은 당시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 조국을 잃은 조선민족모두의 심정이었다.

1945년 8월 15일을 조령출은 서울에서 맞이하였다. 출은 민중이 일제의 악독한 총알의 폭탄에서 신을 하다가 해방된 그 환희의 날도 없는 그에게 있어서 곧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삼천리금수강산을 찾아온 조선인민들의 열광같은 흥도로 가슴이 울렁던 이날이었다.

《독립군》은 8.15해방 직후 남조선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무대 위에 정중히 형상한 첫 작품으로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조령출은 해방은 되었어도 인민대중의 진정한 자유와 리상이 말할당하는 남조선 땅은 여전히 자기의 진정한 집이 아니라라는 것, 결국 자신은 어찌든 변함없이 집없는 천사라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자기가 밤을 새우며 쓴 연극과 노래가 마음대로 불리워지지 못하는 세상, 외세가 주인노릇을 하는 식민지 땅에 더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새 조선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진정한 보금자리-인민의 세상인 북으로 달리는 마음을 견잡지 못하였다.

해 피라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우리의 현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례를 들어 (양산도)의 민요라 하여 (심산은 반박청산이요, 이수는 중분백로주라) 하는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사를 자주 부르기때문에 감동을 줄수 없는것이다.

나를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어 민요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새 사회인민의 사랑을 받는 민요로 되도록 발전시키는 일에 창조적힘을 경주하였다.

민요 《모란봉》은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면서 사랑을 받고있다.

조령출은 종래의 민요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빛내일 생각으로 해방전 한탄의 상징으로 된 가사들을 새로운것으로 창작하였다. 《항금산 백도라지》, 《도라지리랑》, 《법성포노래》, 《양산도》 등이 다 그런 민요들이다.

조령출의 창작활동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더욱 활짝 꽃피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극혁명의 나날 작가에게 온갖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그가 인민의 기억속에 남는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창작활동을 하던 때의 조령출선생과 이름있는 독창가수였던 부인 김관보

주재82(1993)년 2월 12일 아버지수령님께서 친히 작가를 모신다 만나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나이는 얼마마나, 장수하자면 락관함으로 살고 또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수의 비결까지 가르쳐주시었다.

그후 그는 자기의 결심대로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민요창작과 가극창조 사업에 자신의 정열을 깡그리 바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가극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밀림이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밝은 태양 아래서》 등 수많은 가극창조 사업에 조령출을 내세워주시었다.

조령출은 그 믿음에 더 큰 창작실천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위인송가창작에 모

든 정력을 바쳤다. 어느때 4월의 명절날에 작가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게 되었다.

선물을 부여안고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북받치는 격정을 담아 가사를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깊은 동경과 사랑,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총정의 감정...

작가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인민반숙보판에 붙여놓았다. 이것을 본 작곡가 김용성이 흥분하여 그 자리에서 가사에 곡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세상에 태어난것이 바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만경대의 노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창작한 가요 《만경대의 노래》가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다고 하시면서 가극 《밝은 태양아래》를 만들 때 이 노래를 반드시 넣어야 하겠다고 은정깊은 교시를 주시었다.

음악의 천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이 가요는 주체시대의 명곡으로, 가극의 주체곡으로 해마다 4월의 봄명절이 오면 불리워지는 추억의 노래, 위인칭송의 노래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를 만나실 때마다 그의 건강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시며 왜 의사이 보이지 않았는가, 어디 아픈데는 없는가, 조선생은 알지 말아야 한다고 다정히 격려해주시며 일출번세 생일을 시기에 생일상도 마련해주시었고 어드레가는 인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살기 위한 산삼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믿음의 품, 의리에 넘친 사랑의 품에 안겨 작가는 80고령을 눈앞에 둔 때에도 왕성한 창작적의욕을

작가 조령출의 인생은 위대한 령도자의 품에 안길 때 그리고 위인들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일할 때 가장 값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만한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민족수난의 암담한 시기부터 조국혁명의 빛나는 시대에 이르는 기간 인민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가사들을 수많은 창작한 작가 조령출. 그는 민족의 귀중한 음악유산인 계몽가요와 주체시대의 명곡들과 더불어 오늘날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있다.

본사기자